최근 공개된 공포 영화 '해부학 교실'의 티저 포스터가 한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의과대학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해부학 교실'의 티저 포스터는 '메스를 멈춰, 그녀는 죽지 않았어'라는 카피와 함께 상반신을 드러낸 한 여성과 수술장갑을 끼고 메스를 든 손이 클로즈 업된 장면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성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덕분에 '해부학 교실'은 영화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다.

영화계에서 티저 포스터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 본 포스터 보다 더 화제가 되는 티저 포스터들

파격… 공포… 와~ 놀라워라

영화 포스터는 관객이 영화와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 특히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만드는 티저 포스터(teaser poster)는 본 포스터가 만들어지기 전 관객들에게 영화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본 포스터와 달리, 다양한 시도 등을 해볼 수 있는 티저 포스터는 가끔 본 포스터보다 더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개봉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티저 포스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영화 제작사 기획시대의 유인택 대표는 "예전에는 영화 촬영이 끝난 후 2개월 정도면 극장에 걸렸지만 요즘에는 4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때는 본 포스터를 내보내기 앞서 다양한 티저 포스터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티저 포스터 중의 하나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인 '기담'. 기모노를 입은 사람 목에 핏자국을 남기는 섬뜩한 달팽이와 '사랑에… 흘리다'라는 애절한 카피를 담은 '기담'은 강렬한 비주얼이 인상적이다.

제작사 측은 여주인공 김보경의 고운 목에 달팽이가 기어가면서 진홍빛 핏자국을 남기는 장면을 통해 '아름다움과 공포감'을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후 공개된 본 포스터는 일제시대 최고의 서양식 병원 '안생병원'에 모인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섬뜩한 공포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김태우, 진구 등 의사 가운을 입은 전 출연진이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을 채택했다.

'해부학교실'은 포르말린 용액으로 가득 채워진 긴 유리병에 여주인공 한지민의 머리가 담긴 본 포스터를 선보였다.

기획시대가 제작한 '화려한 휴가'는 두 가지 형태의 티저 포스터를 선정했다.

영화 촬영 종료 후 제작한 첫번째 티저 포스터는 안성기·김상경·나문희·송재호·이준기·이요원 등 전 출연진이 도청을 배경으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메인 이미지로 삼았다.

유인택 대표는 "5·18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이야기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티저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특히 출연자들이 워낙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이라 신뢰성을 주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에는 석양 무렵, 피투성이가 된 채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에게 무장한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는 긴박한 그 순간을 포착한 티저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최근 선보인 본 포스터에서는 김상경과 이준기를 부각시켰다.

티저 포스터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를 들 수 있다. 배우 이영애가 캐스팅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화제였던 '친절한 금자씨'는 티저 포스터 선정을 위한 내부 조율과정에서 후보작들이 유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주풍으로 변신한 이영애의 모습과, 보석 모양의 인조 눈물이 인상적이었던 티저 포스터는 다소 밋밋했던 본 포스터보다 '친절한 금자씨'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택시 4	
뤽 베송이 각본과 제작을 맡은 액션영화로 총알보다 빨리 달리는 택시가 주인공이다. 12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 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디센트	
동굴탐험에 나선 6명의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트랜스 포머	
로봇 군단간의 대결을 그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씨노이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는 공포영화.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CGV(첨단), 하미
검은집	
연쇄살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릴러물로 황정민이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머스 광주(제일·상무), 하미, 엔터
4.4.4	
사방이 꽉 막힌 밀실에 갇힌 한 여자의 탈출 과정을 그린 스릴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CGV(상무), 씨너스 전대
오션스 13	
사기꾼 일당의 유쾌한 한탕을 그린 영화로 조지 클루니, 브래드 피트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머스 광주(제일)
슈렉 3	
못생긴 괴물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3번째 이야기.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하미, 엔터,
황진이	
홍석중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송혜교, 유지태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 하미, 엔터
캐리비언의 해적 3 - 세상의 끝에서	
조니뎁, 올랜드 볼룸, 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액션 어드벤쳐. 12세 관람가.	CGV(첨단·상무), 프리머스 광주(상무·제일), 하미, 엔터
밀양	
이창동 감독 작품으로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전도연·송강호 주연. 15세 관람가.	하미, 엔터

주목! 이 영화

'택시 4'

지난 1999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화려하고 빠른 자동차 액션으로 화제를 모았던 '택시'의 4번째 시리즈. 전편과 마찬가지로 뤽 베송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다.

경찰 업무에 공을 세운 다니엘은 이제 총알 스피드로 도심을 달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고뭉치 에밀리앙은 이송 중이던 무시무시한 벨기에 연쇄 살인범을 실수로 풀어주는 대형사고를 쳐 경찰복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한다.

결국 에밀리앙은 살인범을 체포하기 위해 다니엘에게 도움을 청하고 두 사람은 다시 힘을 합쳐 범인 검거에 나선다. 전편에서 일본 야쿠자, 약탈을 일삼는 인라인 족들과 한판 대결을 벌였던 주인공들은 이번 영화에서는 122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과 맞선다.

축구 스타 지브릴 시세가 다니엘의 초스피드 택시에 승차하는 손님으로 깜짝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초스피드 짜릿함과 코미디의 만남

안성기·조한선 '마이 뉴 파트너' 주연 캐스팅

배우 안성기〈사진 왼쪽〉와 조한선이 영화 '마이 뉴 파트너'의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마이 뉴 파트너'는 넉살 좋은 풍속반 반장 아버지와 냉철한 형사 아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8년 만에 뭉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라디오 스타'로 각종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휩쓴 안성기는 인간적인 면모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육감 수사의 일인자 민호로 출연한다.

'열혈남아'를 통해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 조한선은 인정사정 없는 내사과 형사로 일명 '경찰견'으로 불리는 영준역을 맡는다.

'슈퍼스타 감사용'으로 데뷔했던 김종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마이 뉴 파트너'는 이달 말께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